

‘박근혜, 그가 독일로 가는 까닭은?’

23일부터 9박10일간 유럽 방문길
메르켈 총리와의 면담에 관심 집중

2006-09-22 20:08:16

September 22, 2006

데일리안 기사프린트
DAILIAN NEWS PRINT

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23일부터 9박10일 간의 일정으로 벨기에와 독일 등 유럽 방문길에 오른다.

당내 유력 대권주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히는 박 전 대표의 이번 방문은 지난 6월 당 대표직 이임 이후 첫 ‘해외 나들이’로 독일 ‘콘라트 아데나워재단(KAS)’의 초청에 따른 것.

때문에 “정치적으로 해석할 만한 이유는 없다”는 게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설명이다.

그러나 알려진 방문 일정의 면면을 살펴볼 때 향후 대권행보와 관련, ‘국가지도자’로서의 이미지를 각인 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관측이다.



◇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. © 연합뉴스

독일 방문 앞서 EU본부 등 방문… 전작권 관련, NATO‘공동방위 체계’에 관심

실제로 박 전 대표는 독일 방문에 앞서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유럽연합(EU)과 북대서양조약기구(나토, NATO) 본부를 찾아 현지 관계자들로부터 경제·통상 및 외교·안보 분야 등 주요 현안과 유럽 정세의 흐름 등을 듣고 그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.

특히 박 전 대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시 작전통제권 조기 단독행사 문제와 관련, 나토의 공동방위 체계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아울러 방문 일정 중에는 한국전기념탑 현화와 참전용사 및 미망인들과의 만남 등 또한 계획돼 있어 안보 관련 분야에 대한 비중이 눈에 띈다.

이어 박 전 대표는 26일 독일 베를린으로 이동, 독일의 첫 여성 총리인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의 면담을 갖는다.

또 경제기술부와 농업부 등 독일 정부의 관료들을 비롯해 연방의회 의장단, 상공회의소 관계자와 기업인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접촉을 가질 예정이다.

메르켈 독일 총리와의 만남에 관심 집중… 야당 출신 여성 정치인·이공계 전공 ‘공통점’

박 전 대표의 독일 방문 일정 중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무엇보다 메르켈 총리와의 만남.

박 전 대표와 메르켈 총리의 만남은 이번이 두 번째로, 지난 2000년 10월 한나라당 부총재로 있던 박 전 대표는 당시 기독교민주당 당수였던 메르켈 총리를 한 차례 만난 바 있다.

박 전 대표는 이후 메르켈 총리의 당선 소식을 듣고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축하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으며, 두 사람 모두 이공계를 전공했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‘공통점’을 갖고 있다.

그밖에 박 전 대표는 초청 측인 아데나워재단에서 연설을 하고, 파독광부와 간호사 출신 교민들 주최의 환영행사 참석 및 박정희 전 대통령이 찾았던 함보른 탄광 방문 등도 계획 중이다.

박 전 대표의 이번 방문에는 김기춘, 심재엽, 최경환 의원 등이 동행할 예정이다.

뉴라이트전국연합 대구지부 결성식 참석… ‘박사모’ vs. ‘명박사랑’ 세 대결은 불발

한편 박 전 대표는 출국 전날인 22일 대구 프린스호텔에서 열린 뉴라이트전국연합 대구지부 결성식에 참석해 행사장 앞에 모인 ‘박사모(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)’ 회원 등 100여명의 지지자들로부터 환영을 받았다.

당초 이날 행사에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져 이 전 시장의 팬클럽 ‘명박사랑’과의 세 대결이 벌어질 것으로 관측됐다.

그러나 이 전 시장은 만일의 사태를 우려해 행사에 불참했으며, 지역구 장애인 복지관 개소식 참석차 이곳을 찾았던 박 전 대표만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.

박 전 대표는 23일 오후 1시30분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한다.

September 22, 2006**데일리안 기사프린트**
DAILIAN NEWS PRINT

Übersetzung

Park Geun-hye – Hintergründe zum Deutschlandbesuch

Gespräch mit Bundeskanzlerin Merkel während des zehntägigen Europabesuchs stößt auf großes Interesse.

Die ehemalige Parteivorsitzende der GNP Park Geun-hye besucht zusammen mit einer koreanischen Abgeordnetendelegation ab dem 23. September für zehn Tage Europa. Als eine der aussichtsreichsten Präsidentschaftskandidaten innerhalb der Partei ist sie von der deutschen „Konrad-Adenauer-Stiftung“ eingeladen worden.

Frau Park hat bereits im Oktober 2000 die damalige Parteivorsitzende der CDU, Angela Merkel, getroffen.